

대행 스님

물질을 보고 끄달리지 말고 내 마음부터 뚫어 보라



그림 · 최주현

왜 주인공이라 하시는지요

질문 이제 마음공부를 막 시작한 초보 불자입니다. 대행 큰스님께서는 늘 "주인공에 관하라." 하셨는데 그 주인공이 참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주인공이라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분 앞에 했던 말을 또 되하게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만날 되풀이하고 있는 거니까요. 불교다 하면 불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고 교라는 건 아주 옳고 바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면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지구 안에서, 즉 독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라고 평이 됩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마 인간인 것 같습니다. 지붕에서 벌레가 하나 뚝 떨어지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하니까 뭐가 됐느냐 하면 매미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매미는 전자에 자기가 벌레로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또 자기가 매미가 됐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자기가 전자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또는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해 가지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옷을 입고 나올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지금 한 발 한 발…, 평소에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저는 옷을 벗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옷을 벗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에 생겨났다면 벌써 "나는 옷을 벗기 위해서 생겨났다." 즉 죽기 위해서 생겨났다. 또 죽는다면 "살기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하겠지마는 그걸 첨보해서 둘이 아니게 생각을 한다면 생사윤회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죠. 끄달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해가 가도록 말을 하느냐. 첫째 내 몸, 둘째 가정, 셋째 사회, 넷째 국가, 다섯째 세계 전체에 우리가 너무도 하는 일도 많지만 오늘은 우리 몸으로부터 얘길 잠깐 해 드리죠.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이 태어날 때는…,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삼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삼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즉 말하자면 나 자체, 그러니까 모든 이 마음의 근원이라고 할까요? 그 근원 자체가 한데 합쳐져서,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지면 어린애가 되듯이,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져도 씨가 없으면 안 되는 이치가 있다고 봅니다. 삼합이 한데 합쳐지니까 인간 하나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것을 일컬어 삼신이라고 우리가 전자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태어날 때 말입니다, 물주머니에서 터져서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수화풍에서부터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지니 그것이 바로 큰 성을 이루었고 성을 이루었으니 온기가 거기 등장을 했고 모든 것이, 이 삼라만상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우린 지금까지도 지수화풍을 떠나서는 못 삽니다. 지금 몸도 지수화풍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물질이 무엇인가? 내가 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태초에 생긴 자체가 무슨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바로 여러분의 그 몸속에 있는, 갖은 각색으로 해 가지고 있는 세균, 그 생명들입니다. 그 생명, 모습이 바로 태초의 자기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 그렇게 각각 제 모습을 해 가지고 지금 수만 개가 돼 가지고 이 인간의 별성 하나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내가 나오고부터 이 세상은 생긴 겁니다. 불교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삼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어요. 후로 갈 것도 없고요. 대충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 참작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내 태초의 모습이 하나가 수만 개가 돼 가지고 지금 몸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체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그 겹겹의 세포의 모든 것이 있는데 선장은 누구냐 하면 자기의 모든 마음, 즉 말하자면 공생이다. 우리가 전체 합치면 공생이다, 공용이다, 공체다, 공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따져 본다면 내 몸 하나가 은하계도 될 수 있는 건가 하면 바로 혹성이기도 하고 별성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한시반시를 그냥 머무르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가, 이 세상 우주가 전체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몸이 자도 깨도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운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의 그 마음 하나를, 한생각을 잘하면 자기 몸을 잘 끌고 다닐 수가 있고, 한생각을 잘못하면 자기 몸을 구덩이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실 때에 잘 끌고 가면 차도 성하고 일이 잘 성사가 되고, 잘못 끌고 가면, 어디 꼬라박기라도 하면 몸이 다치고 이러듯이 사람 몸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어떠한 쇼크를 받았다거나 이래도 그 몸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화기가 치밀어서 말입니다. 병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 자체를 어떻게 먹어야만 되느냐. 내가 나고서부터 세상은 일어난 거니까 나로부터 화두가 되며 나로부터 근원을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사대성인이 이렇게 말을 했죠. 자신을 알라고요. 자신을 알아야 남을 알고 남을 알아야 서로 공생하는 거를 알고 공용하는 거를 알죠. 그럼으로써 한마음이 선장이라고 한다면 모든 이 중생들을 지금 배에 태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어느 종교를 나누어서 찾을 게 아니라, 전체 우리는 바로 공생이며 공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밥이나 해 놓고 떡이나 해 놓고 비는 것이 불법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등 동물이라고나 할까. 인간은 90%, 99%가 부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걸 보면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생각을 낼 줄 아니 그게 부처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 몸으로부터 마음을 움죽거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몸을 움죽거리면서 오관을 통해서 우리가 움죽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태초도 내 몸에 있고 화두도 내 몸에 있고, 참선이라는 것은 생활에서 똥을 누든 밥을 먹든 자든 깨든 참선입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한다 하고 펜대를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참선입니다. 그건 자기 주인공으로 인하여 자기가 움죽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긴 바로 자기 주인에 의해서, 즉 운전수에 의해서 차가 움죽거리듯 그럴 뿐입니다. 인간은 이 오온으로써 바깥 경계를 보고 안으로 들입니다. 안으로 들여서 또 가미해 가지고 안에서 만법을 또 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찰나찰나 우리가 쉬지 않고 가는 그 도리, 하나도 고정됨이 없이, 눈도 고정된 게 없고 귀도 고정된 게 없고, 말도 고정된 게 없고 만남도 고정된 게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 관계상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내가 어느 때에 걸어갈 때에 나라고 할 수 있으며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으랴. 그래서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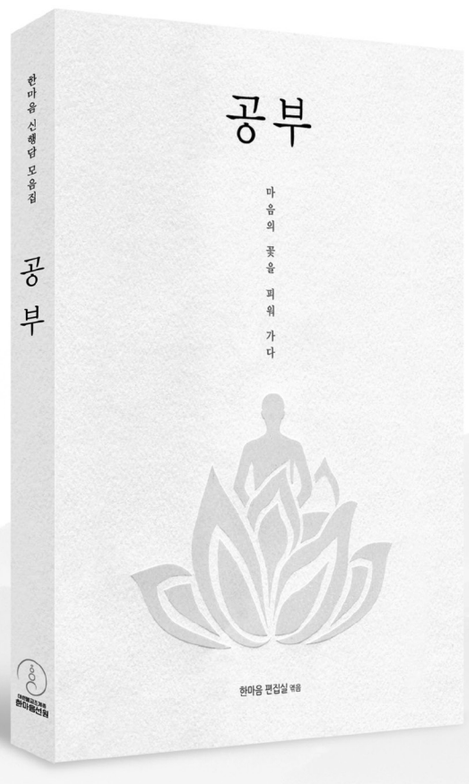
질문 저는 오랫동안 기복으로 기도하는 습이 있어서,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옛날에 약초를 캐는 착한 나무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약초를 캐면서도 항상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한 채, 나오면 몇 며칠이 걸리니까, 한 달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항상 마음의 기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약초를 캐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서 아주 몹시 다쳤습니다. 산골에서 다쳐서 내려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엉엉 울었습니다. 울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어느 대선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